

미국의 극우파와 ‘기독교 정체’ 운동(1945-1990)

이 주 영*

차 례

1. 브리티시 - 이스라엘리즘의 단계
기본 개념과 그것의 영국적 기원
에드워드 하인과 미국으로의 전파
윌리엄 카메론과 미국에서의 정착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독교 정체’
제럴드 스미스와 통합 운동
웨슬리 스위프트와 반공 운동
3. 1970년대 이후의 과격화
포세 코미타투스과 지방국가
생존주의와 영토분리주의
‘신의 법’ 과 자유방임주의
4. 맺 음 말

1960년대에 ‘신좌파’가 출현한 이후로 미국의 대학과 지식계는 계속 ‘좌경화’의¹⁾ 길을 걸어 왔다. 그에 따라 인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는 좌파들이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의 적인 우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설사 관심을 가졌다 하

* 건국대 사학과 교수.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2004년).

- 1) ‘좌경화’와 ‘좌파’로 정의하는 기준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론을 전적으로,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과격한 세력은 극좌파로 부를 수 있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온건한 세력은 중도좌파, 또는 진보파(liberals)로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되는 좌파는 위의 두 세력에 덧붙여, 사회변혁의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신좌파’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이다. 바꾸어 말하면, 넓은 의미의 좌파는 공산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뉴딜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인간의 총체적 해방을 지향하는 문화혁명가인 ‘신좌파’를 포함하는 말로 사용된다.

더라도 공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우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왜곡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들을 공격한 좌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진상을 거꾸로 추적하는 길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잊혀진 우파’에 대해 필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좌파와 우파 사이에 벌어진 ‘문화 전쟁’에서 우파가 내세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또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ism),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가치들이 우파, 특히 극우파(the far Right)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흠족하지 못한 것이나마 ‘신우파’, 그리고 백인민병대(militia)를 중심으로한 ‘극우파’에 대해 쓴 적이 있다.²⁾

그 과정에서 필자는 미국의 극우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는 아주 생소한 ‘기독교 정체(Christian Identity)’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극우파들의 거의 모두가 그것을 기본 이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학계에서도 별로 연구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이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미국 사회가 좌-우대결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한, ‘기독교 정체’ 신학의 문제는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선 개괄적인 것이거나 윤곽이나 형성과정만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일반적인 의미의 극우파(the Radical Right)는 1930년대의 파시스트나 나찌처럼 민족 공동체라는 전체를 모든 가치들 보다 앞세우는 극단적인 집단주의자, 전체주의자, 공동체주의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1980년대부터 나타난 미국 극우파(the Far Right)는 개인을 모든 가치들 보다 앞에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individualist),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를 가리키고 있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은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하다. 특히 인종주의와 반공주의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내세운다는 점에서 같다.

1. 브리티시 - 이스라엘리즘의 단계

기본 개념과 그것의 영국적 기원

‘기독교 정체’ 신학은 소수와 종교 집단에 의해 1970, 80년대에 갑자기 미국 사회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 특이한 사상이므로, 주류에 끼지 못하는 소수와 종교 집단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는 이념일 뿐이다.

‘문화적 좌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 학계에서 이와 같은 생소한 사상은 인정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대학에서 연구되거나 가르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와는 전혀 관계를 갖지 못하는 낯선 사상이다. 대학에 소속된 전문적인 신학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체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은 독립 교회나 성경 공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고립된 평신도나 개신교 목사들의 생각을 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데, 그 주요한 요소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백인인종주의(white Racism)의 사상, 즉 오늘날의 백인은 다른 인종들 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말하는 백인은 아리안 족으로서, 주로는 ‘앵글로색슨’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백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근거를 생물학, 우생학에서 찾지 않고 성서에서 찾고 있는 것이 보통의 인종주의자들과 다른 점이다. 즉, 오늘날의 아리안 족이 우수한 것은 그들이 고대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부족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백인이 우월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위에서 신의 일을 수행할 사명을 가진 선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백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살아 왔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identity)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기독교 정체’(Christian Identity)로 부르게 되었

던 것이다(Barkun viii).

둘째는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사상인데, 이것도 성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반유대주의자들과 다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유대인이 열등한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종이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의 유대인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악마와 이브가 장난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악의 자손, 즉 카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음흉과 반역”의 체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인종들과의 피를 섞어 타락한 혼혈 인종이 됨으로써, “가장 진보적이지 못한 부족”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음모론적인 역사관(conspiratorial view of history)과 천년왕국 사상(Millenarianism)에 입각하여 사회를 보는 태도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것처럼 사악한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며 왔고, 지금도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정부의 수립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인 아리안 족’은 유대인의 음모로부터 미국과 세상을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때문에 언젠가는 유대인과 그들의 동맹 세력에 대항하여 인류 최후의 거대한 ‘아마게돈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세기 영국이었다. 그 이후로 그것은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British-Israelism), 또는 앵글로색슨 이스라엘리즘(Anglo-Saxon Israelism)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뿌리는 아득한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는 유대인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였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국은 앗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는 유다 왕국도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 갔던 시대였다.

19세기 영국의 브리티시이스라엘주의자들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민들은 브리튼 섬으로 흘러 들어가 오늘날의 영국인이 되었

다는 것이다. 즉, 19세기 영국인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라진 10개 지파’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처럼 이 땅 위에서 신의 계획을 실현할 운명을 지닌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것이다(Garrett 184).

이러한 주장이 나온 19세기에 유럽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물결로 휩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영국 민족주의를 강화해 주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주장을 처음 내세운 영국인은 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유복한 직물업자인 존 윌슨(John Wilson)이었다. 윌슨은 개신교도로서, 자기보다 200년 전인 17세기에 유행했던 천년왕국설(millennialism)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북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영국인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임을 밝혀내게 되었다.

그의 조사 결과는 1840-1876년에 걸친 기간에 『우리의 이스라엘적 기원에 관한 강의』(*Lectures on Our Israelish Origin*)이란 책으로 출간되었다. 그 책에 따르면, 고대에 사라진 이스라엘 10개 지파 가운데서 요셉의 아들의 하나인 에프라임(Ephraim)의 후손들이 브리튼 섬으로 흘러들어 왔고, 그 때문에 영국인과 이스라엘인은 같은 종족이라는 주장이었다. 그 증거로서 그는 영어와 히브리어의 일상 단어와 사람 이름이 닮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두 민족이 모두 제한군주제의 정치제도나 배심원제의 재판 제도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브리튼 섬에 들어 온 이스라엘인들은 바다에 의해 유럽 대륙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적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대로 남아 있던 유다 왕국의 유민들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고 ‘가장 형편없는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이스라엘 인으로서의 피의 순수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스라엘 인의 정통성은 영국의 앵글로-색슨 족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Horsman 32, 37-38, 63). 그에 따라 19세기의 영국은 신의 백성으로서의 정통

성과 함께 영적 우월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영국인이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것은 마치 고대 이스라엘에서 야곱(Jacob)이 그의 형인 에서(Esau)에서로부터 출생권 축복(birthright blessing)을 빼앗은 것과 같은 경우였다. 야곱의 출생권 축복은 그 이후에 두 아들인 에프라임과 므낫세에 넘어갔는데(구약성서 역대 상 5장 1절, 창세기 48장 19-20절), 영국인은 바로 동생인 에프라임의 자식들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이다.

존 윌슨의 인종주의 사상은 영국인과 독일인이 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는 튜톤주의(Teutonism)로 까지 발전하였다. 그 근거로서 그는 두 국민의 정치 제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원시 시대의 앵글로색슨 족과 게르만 족은 모두 때 묻지 않은 원시 부족 생활을 통해 자연적인 민주주의(natural democracy)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국인과 독일인들은 1066년에 프랑스 땅으로부터 건너와 앵글로색슨 족을 정복한 노르만 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노르만 인들은 권위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존 윌슨의 튜톤주의는 오래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1870년대에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된 강대국 독일이 세계 무대에서 영국을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브리티시-이스라엘 주의자들은 독일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인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그래서 에드워드 하인은 고대 이스라엘인이 고대 앗시리아인에 대해 싸웠던 것처럼 영국인도 독일인에 대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Barkun 11).

에드워드 하인과 미국으로의 전파

존 윌슨에 뒤를 이은 브리티시이스라엘주의자는 에드워드 하인(Edward Hine, 1825-91)이었고, 그 사상을 미국으로 전파한 공로가 있었다. 그는 1884-1888년 기간에 미국에 머물면서 뉴욕과 뉴

헤이븐을 비롯한 동북부 지방,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중서부 지방 및 그것에 가까운 캐나다 지역에서 그 사상을 퍼뜨렸다. 그의 주장은 미국에서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모르몬교도, 오순절교도와 같은 천년왕국주의자, 복음주의자들이 많아 '미국인의 선민의식'이나 '미국인의 운명'을 믿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인의 애국심이나 국민주의의 강화의 영향을 주었다.

미국에서 선민사상과 국민주의 감정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은 문학가 허만 멜빌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멜빌은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의 영향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선민사상에 휩싸여 있었다. "속박의 집으로부터 도망 나온 이스라엘인들(미국인들)은 옛날부터도 이집트인들(유럽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확실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어진 것은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미국인들은 독특하고 선택된 백성, 다시 말해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인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자유라는 방주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고 허만 멜빌은 썼다(Ernest 156-57).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브리티시이스라엘주의자들은 미국인이 영국인과 대등한 선민이라는 주장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인만이 선민이라는 국민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갔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셉 와일드(Joseph Wilde) 목사였다. 그는 뉴욕의 부르클린 회중교회의 목사로서, 미국인이 요셉의 또 다른 아들인 므낫세(Manasseh)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때문에 미국인은 에프라임의 자손인 영국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이 에프라임을 대변하고 미국이 므낫세를 대변한다고 한다면, 미국인들은 정치적으로 다른 국민들보다 더 우월함이 확실하다."고 조셉 와일드는 썼다(Barkun 18).

이것은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 또는 앵글로색슨 이스라엘리즘이 '미국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는 예일 대학의 찰스 토텐(Charles Toten)에게서 나타났다. 찰스 토텐은 예일 대학에서 포병 중위로서 군사학 교수직을 맡고 있

었다. 그것은 오늘날의 학도군사훈련단(ROTC) 단장에 해당하는 자리였다. 그는 1890-1909년 기간에 발행한 정기 간행물 『우리 인종』(*Our Race: Its Origin and Destiny*)에서 그의 주장을 발표하였다. 그의 사상은 아직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낯 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언젠가는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미국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다는 생각은 인종주의와 국민주의의 감정이 강한 미국인들에게 쉽게 파고들었다. 특히 중산계급에서 지지자가 많았다.

그 다음 단계에서 그와 같은 사상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1910년대에 주로 활동한 보챔프(A.A. Beauchamp)였다. 그는 보스톤의 출판업자로서 자기가 발행하는 『이스라엘의 파수』(*Watchman of Israel*)에서, “영어 사용 국민은, 사라진 고대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직접적인 후손으로서,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명되었던 책무들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른 지금 당장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말은 종교적 급진 사상인 브리티시이스라엘리즘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급진주의와의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종교 운동과 정치 운동의 결합은 오리곤 주 포틀랜드의 목사로서 보챔프의 친구인 류 벤 쏘이어(Reuben Sawyer)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류벤 쏘이어는 1920년대에 그 운동의 통합 기구로서 브리티시이스라엘 세계연합(the British-Israel World Federation)을 조직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 운동을 쿠클릭스클랜(KKK) 운동과 병행했다는 사실이었다.³⁾ 쿠클릭스클랜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창했던 1920년대에, 류벤 쏘이어는 그것을 오리곤의 포틀랜드에 처음 도입하였다. 쿠클릭스클랜 운동은, “외국인 세력들”을 경멸하고 미국의 전통적 도덕성을 찬양

3) 쿠클릭스클랜 운동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안윤모, 「1920년대 쿠클릭스클랜과 도덕 개혁」, 『미국사연구』 제11집 (한국미국사학회, 2000); 안윤모, 「1960년대 쿠클릭스클랜과 민권 운동」, 『인문논총』 제11집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하는 ‘아메리카니즘’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선민 사상과 반유대주의를 내세우는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과 쉽게 결합될 수 있었다.

류벤 소이어에 이르러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 속에는 나중에 유대인 공격에 많이 사용된 ‘유대인의 음모’라든가, “우리 정부 속의 또 다른 정부’와 같은 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가 유대인을 극도로 미워한 이유는 그들이 ‘미국적 이상’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것, 특히 공산주의와 연결되었다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우리 미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자들이든가, 아니면 돈 놀이하자는 자, 아니면 고용자로서 기독교도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금융이나 상업의 ‘샤일록’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미국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다. 지금 미국에는 우글거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백인들이 걸어가기 힘든 곳이 많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는 공산주의(bolshevism)와 혁명을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는 썼다 (Barkun 25).

이와 같은 공격적인 반유대주의는 이전의 반유대주의와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이전에 브리티시이스라엘 주의자들은 모든 유대인을 무조건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미워하고 경멸한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순수하지 못한 유대인’으로 분류한 아쉬케나직(Ashkenazic), 즉 동유럽 출신 유대인들이었다. 세파르딕(Sephardic), 즉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동유럽 출신인 아쉬케나직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 모든 유대인은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다.

윌리엄 카메론과 미국에서의 정착

1930년대에 미국에서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 운동은 제2세대의 지도자들을 맞이 하게 되었다. 이것은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 영국

적인 뿌리로부터 벗어나 미국적인 뿌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였고, 그러한 변화는 ‘기독교 정체’ 신학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지도자의 한 사람이 매사추세츠의 변호사인 하워드 랜드(Howard Rand)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예일 대학의 찰스 토튼을 열렬히 숭배하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 사상에 물들게 하기 위해 그 문제에 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 돈을 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아버지의 뜻한 바대로, 하워드 랜드는 브리티시이스라엘주의자로 성장하였다. 그는 전국의 브리티시이스라엘주의자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들의 종교 사상을 정치적 강령으로 바꾸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 세력을 결속시켜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였다. 그는 그의 세력을 우파 정치 세력들, 특히 반유대주의 세력들과 결합시킴으로써, 그 운동이 활성화될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의 꿈은 1930년에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에서 미국앵글로색슨연합(Anglo-Saxon Federation of America)을 조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조직화 과정에서 그는 기업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그 조직의 회장 자리를 맡은 적이 없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 조직의 출현으로 미국의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은 영국의 그것과 손을 끊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는 대공황기로 대중의 불안감과 불만이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 정체’ 신학이 대중 속에 파고들어 가기 쉬웠다.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천년왕국설은 경제난으로 절망상태에 빠진 대중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앵글로색슨연합은 ‘기독교 정체’의 관점에서 1929년 대공황의 고통을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였다. 그것의 설명에 따르면, 대공황은 갑자기 예측할 수 없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예언은 그러한 때가 세계에 닥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고 그것은 설명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서에는 대공황의 해결 방법도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나라가) 빛,이자, 양도와 관련하여 성서의 법을 제정하기만 한다면. . .여호와의 협동

적인 체제가 현재의 공황을 완전히 없앨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Barkun 30). 미국앵글로색슨연합 조직은 캐나다 출신의 윌리엄 카메론(William Cameron)에 의해 더욱 더 활성화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그 조직의 회장이 된 윌리엄 카메론은 자동차 왕 헨리 포드(Henry Ford)가 발행하는 주간지 <디어본 독립신문>(Dearborn Independent)의 편집 책임을 맡았다. 그에 의해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은 반유대주의와 굳게 결합되었다. 그에 따라 반유대주의 운동은 격렬해지게 되었다.

그의 활동은 신문기자 출신으로서 의원 보좌관이었던 프레드 마빈(Fred Marvin)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프레드 마빈은 애국단체연합을 조직하였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모든 “반역 행위에 대항해 싸우기 위한 것이었다. 앵글로-색슨 족은 신의 도구(instruments)로서 “사악과 반역”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고, 나아가 세계를 구출해야 된다”고 그는 외쳤다.

윌리엄 카메론은 <디어본 독립신문>에 “유대인의 농민 조직 착취” 등과 같은 반유대인적인 글을 써서 유대인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의 글들은 『국제유대인』(The International Jews)으로 묶여졌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유대인 비난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일상적인” 유대인 배척 방법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주택 매입이나 취업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부추긴다든가, 또는 말과 행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방법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례적인” 유대인 배척 방법으로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그것은 대공황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린다는가, 또는 대공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제거를 위한 정치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19세기말에 중서부의 농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곤경에 대한 책임을 동북부 대도시 부유층의 음모에 돌렸던 민중주의(Populism) 운동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대

중의 불만을 유대인 배척 운동을 통해 해소케 하려는 분노의 정치(politics of resentment)였다(Barkun 34).

그러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윌리엄 카메론은 성서를 이용하였다. 그러한 생각은 그의 글이나 연설에 붙은 제목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것들은 “모세의 경제 범칙에 관한 논의”, “앵글로색슨 족에 관해 내가 믿는 것”, “신의 경제 범칙”과 같은 제목들을 달고 있었다.

윌리엄 카메론은 성서가 앵글로색슨 족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인종주의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성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인종이 그들의 적인 “에서 인종”(the Esau race)과 싸우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에서의 자손들인 에도마이트 족(Edomite)과 혼인함으로써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와 같은 인종적 혼합 때문에 그들은 원래의 유대 인종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윌리엄 카메론의 반유대주의에는 유대인의 세계 지배 음모(conspiracy)의 개념도 나타나고 있다. 유대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이간질 분자들로서, “어두움과 고통”의 체질을 가진 “가장 진보적이지 못한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모가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전에, 유대인의 사악한 의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 유대인의 음모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온의 장로들의 의정서』(*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그것이 “기독교 사회의 파괴를 위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한” 책이라고 칭찬하였다.

유대인을 맹렬히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는 1925년에 유대인 아론 사피로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법정에서 윌리엄 카메론은 그의 후원자인 헨리 포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반유대주의적인 글과 활동은 자신의 단독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헨리 포드는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1927년에 그 잡지를 폐간하였다.

그렇지만 윌리엄 카메론은 재판 도중에 7일간의 증언을 통해 자기

의 주장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 제정 러시아 시대의 반유대주의적인 책인 『시온의 장로들의 의정서』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공황기인 1930년대에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 운동은 윌리엄 카메론과 하워드 랜드에 의해 그 절정기에 이르렀다. 2차세계대전 끝날 때 까지, 두 사람은 미국앵글로색슨연합을 매개로하여 미국판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정체’의 신학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루즈벨트 행정부가 1934년에 금주법을 폐지하면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워드 랜드는 금주 운동가인 데, 윌리엄 카메론은 알콜 중독자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윌리엄 카메론은, 1947년에 그의 후원자인 헨리 포드가 죽자, 신앙을 바꾸어 통합교(Unity)의 목사가 되었다. 그 교파는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신비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윌리엄 카메론은 1955년에 죽었다.

그러나 하워드 랜드는 미국앵글로색슨연합을 계속 유지시켜 나갔다. 그러다가 102세의 나이로 1991년에 죽었다.

2.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기독교 정체’

제랄드 스미스와 통합 운동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의 중심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한 변화는 그것의 명칭 자체가 ‘기독교정체’신학으로 바뀌어진 사실에서 잘 나타났다. 그에 따라 미국에서는 “브리티시 이스라엘”이나 “앵글로이스라엘”과 같은 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의 ‘미국화’는 다른 한 편에서 그 운동의 중심이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졌다는 사실도 의미하였다. 그 가운데서

도 태평양 연안지역의 로스앤젤레스가 중심이었다. 1920, 30년대에 로스앤젤레스 시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순절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복음주의적인 신흥종교들이 번성하였다. 그와 같은 풍토 속에서 '기독교 정체' 신학도 번성하고, 또한 더욱 더 천년왕국설과 반유대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에 따라 반유대주의(anti-Semitism)의 성격도 더욱 더 강경해졌다. 이제 유대인은 미국적 생활에 동화될 수 없는 사악한 세력이라는 비난을 훨씬 넘어, '악마의 자손', 또는 '사악 그 자체'라고 부를 정도로 반유대주의의 목소리는 과격해졌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격한 반유대주의의 천명은 제럴드 스미스, 웨슬리 스위프트와 같은 우파 정치인들의 손에 넘어 갔다.

제럴드 스미스(Gerald K. Smith)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가난한 농민들의 대변자였던 휴이 롱(Huey Long)의 핵심 참모였다. 휴이 롱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부의 분배를 요구하였던 우파 민중주의 정치가였다.

그러나 1935년에 휴이 롱이 암살되자, 제럴드 스미스는 방향을 바꾸어 반유대주의자가 되었다. 1943년에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면서 '기독교 정체'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1953년에는 아예 활동 중심지를 그 곳으로 옮겼다. 제럴드 스미스의 가담으로 '기독교 정체' 운동은 정치 운동의 모습을 뚜렷이 가지게 되었다.

첫째로, 제럴드 스미스는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 운동을 한편에서는 종교 운동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 운동으로 병행시켰다. 그 때문에 그의 정치 운동의 중심은 유대인 배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을 '기독교 정체' 신학의 신봉자라고 분명히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76년에 죽을 때까지 '기독교 정체' 신학의 노선에 따라 행동하였다.

둘째로, 제럴드 스미스는 유대인의 국제적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기독교 정체' 신학을 국제주의의 거부와 결부시켜 놓았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미국이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공산주의의 확산과 흑인 민권의 신장에 대해서도 반

대하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유대인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제럴드 스미스는 그 동안 여러 갈래에서 잡다하게 진행되던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 운동을 느슨하게나마 하나로 통합하였다. 원래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 운동 세력들은,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정부주의적인 성격을 띠어 왔다. 따라서 그들은 일관된 노선이나 중앙 조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 제랄드 스미스는 태평양 연안 지역의 조직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활용하려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게 해서 조직된 것이 기독교국민운동(Christian Nationlaist Crusade) 이었다. 그것은 ‘기독교 정체’ 신앙을 토대로 통일된 조직으로서, 기관지인 『십자가와 깃발』(*The Cross and the Flag*)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였다. 그것의 조직망은 중앙 조직으로 보기에 너무 느슨한 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과 개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정도의 기본 테두리는 제공할 정도로 응집력이 있었다.

제럴드 스미스가 그 정도로나마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인물들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나단 퍼킨스(Jonathan Elsworth Perkins)였다. 그는 오하이오 농촌의 감리교 집안 출신이었다. ‘기독교 정체’ 신학을 알게 되면서, 그는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지배를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는 미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는 국제주의와 세계정부를 내세우는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제2차대전이 거의 끝나가던 1945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연합 창설 총회가 열리자, 그것의 출범을 맹렬히 반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제럴드 스미스를 만나게 되었다.

또한 퍼킨스는 흑인이 미국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1948년에 민주당의 남부 세력이 민주당의 흑

백통합 정강에 반발하여 민주당을 탈퇴했을 때, 그는 새로이 창설된 주권당(States' Right Party)과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스트롬 서몬드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그러나 인종주의에 대한 그의 주장이 너무나 격렬한 것이었기 때문에, 남부의 인종분리주의자들 마저도 그와의 협조를 꺼릴 정도였다. 그래서 결국 그는 1949년에 제랄드 스미스와의 손을 끊게 되었다. 결별의 이유는 스미스에게는 권력을 잡으면 독재자가 될 성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제랄드 스미스의 또 다른 주변 인물은 스탠포드 대학 출신의 변호사 버트란드 콤파레트(Bertrand Comparet)였다. 콤파레트는 제랄드 스미스가 의장으로 있는 캘리포니아 반공연맹(the California Anti-Communist League)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었다. 그도 역시 공산주의와 유대인의 위협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당신의 전통』(*Your Heritage*)라는 잡지 발행을 통해 1983년에 죽기까지 '기독교 정체' 신앙을 퍼뜨리는 데 힘을 기울였다(Barkun 60).

웨슬리 스유프트와 반공 운동

제랄드 스미스의 주변 인물 가운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웨슬리 스유프트(Wesley Swift)였다. 스유프트의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로서, 열렬한 반공주의자였다. 그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통해 반공주의 상원의원인 조셉 매카시(Joseph McCarthy)의 사상에 대해 알게 되고, 또한 윌리엄 카메론의 『국제유대인』(*The International Jews*)도 읽게 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 교단은 너무나 좌경화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감리교의 대다수 목사들은 체제 비판과 개혁주의를 외치는 '사회 복음'(the Social Gospel)의 교리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는 감리교를 떠나기 위해 활동무대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겼다. 거기서 부흥 목사로 활동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교회인 앵글로색슨 기독교 회중 교회를 세웠다. 그는 예수가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반유대주의적이었

다.

웨슬리 스유프트는 감동적인 설교를 잘 하는 목사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그의 글들은 설교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그는 '기독교 정체' 신학의 관점에서 성서를 알기 쉽게 해석하는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제럴드 스미스로부터, "진정한 이스라엘'을 확인해냄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었고. . . 우리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었다."는 칭찬을 받았다(Roy 103).

웨슬리 스유프트는 제럴드 스미스가 만든 기독교국민운동(Christian Nationlaist Crusade)을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로 '기독교 정체' 신학이 우파 정치 세력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화당의 반공주의 정치가들인 윌리엄 제너, 존 브릭커, 조셉 맥카시, 윌리엄 노울랜드 상원의원 등과 연결이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다른 한편에서 쿠클럭스클렌(KKK) 운동을 병행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쿠클럭스클렌 운동은 쇠퇴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러한 활동의 하나로 그는 로스앤젤레스 북쪽의 산간 도시인 빅베어레이크에서 십자가에 불을 붙이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1964년에는 미국 나찌 지도자인 조오지 링컨 록크웰과도 조직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웨슬리 스유프트는 공산주의자들이 체제 전복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미국 국민에게 경고하는 반공운동에도 열성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제랄드 스미스가 의장으로 있는 캘리포니아 반공연맹(Anti-Communist League)에서 열렬한 반공주의자로 활동하였다.

그러한 반공주의 때문에 그는 1950년대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맹렬히 공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반공적인 공화당 행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의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데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일들을 숨기고 있다. 왜(아이젠하워)대통령은 정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반역행위에 대해 상원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왜 이 무서운 유대인 마투소

우를 증인으로 내세워 상원 위원회들을 농락하는가? ...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알아야 하겠다.”고 그는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소련에 대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외정책에 대해서도 비난하였다. 당시 아이젠하워 정부는 흐루시초프에게 국제연합 총회에서 연설하고 미국을 여행하도록 허용하였는데, 그는 그것을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반역 행위로 공격하였던 것이다. 그는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본 흐루시초프의 미국 침공”이란 강연을 통해 소련과 공산주의의 위협을 미국 국민에게 경고하였다.

웨슬리 스유프트는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에 대한 무력 투쟁의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 그는 1932-1946년 기간에 12정의 권총을 산 기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장총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그는 무장 단체들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1965년에 캘리포니아 주 법무국이 무장 단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주 법무국 보고서에 따르면, 웨슬리 스유프트는 두 개의 무장 단체와 관련이 있었다.

하나는 기독교방위연맹(Christian Defense League, CDL)이었다. 이 단체가 무장 활동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은 한 조직원의 집 수색에서 8정의 기관총을 비롯한 무기들이 발견된 사실로 드러났다.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 레인저즈(California Rangers)였다. 그것도 한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비밀리에 기관총과 기관단총을 판매 혐의로 체포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두 무장단체 가운데서도 웨슬리 스유프트는 기독교방위연맹과의 관련이 더 깊었다. 그 이유는 그 조직의 창설자인 윌리엄 포터 게일(William Porter Gale)이 그의 부하였기 때문이다. 게일은 콤파레트, 스유프트와 함께 캘리포니아 기독교 정체의 3총사로 불리는 핵심 세력이었다.

윌리엄 포터 게일은 27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최연소 육군 중령이 될 정도로 군대 생활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제2차대전 기간에 필리핀에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참모로 일하면서 일본인에 대해 원주인을 게릴라 부대로 조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33세가 되는 해에 전투로 부상을 당하게 됨으로서 군대를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1956년에 웨슬리 스위프트를 만나 '기독교 정체' 신학의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1946년부터 '기독교 정체'의 신학에 대해 알고는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군인 신분으로 예일 대학에 파견되어 위탁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간에 그는 예일 대학의 찰스 토튼을 알게 되었다.

군사전문가인 게일의 지도로 기독교방위연맹(CPDL)은 기독교 정체 신학을 실천할 도구로서 무장 투쟁을 옹호하게 되었다. 그 조직은 기독교정체의 행동대로서, 다이나마이트를 훔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암살하기 위한 음모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건에 간여하였다.

1973년에 기독교방위연맹의 회장 자리는 제임스 와너(James K. Warner)에게 넘어 갔다. 와너의 생애를 보면, '기독교 정체'의 신봉자들이 얼마나 복잡한 정치적,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나찌 백인당(National Socialist White People's party)과 관련을 가졌던 적이 있는가 하면, 북유럽인들의 고대 종교인 오딘신앙(Odinism)에 빠진 적이 있는 등, 복잡한 행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포터 게일은 '기독교 정체' 신학으로 개종한 것은 웨슬리 스위프트의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였다. 그 설교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는 “한 백인으로서 너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부족들의 한 자손이며 신의 선택된 백성과 같은 것이다.”고 외쳤다. 그는 나중에 기독교방위연맹 회장을 그만두고 루이지아나로 옮겨 가 쿠클럭스클렌(KKK)의 거물인 데이비도 듀크와 손을 잡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 '기독교 정체'에 관한 웨슬리 스위프트의 글을 널리 퍼뜨리는 데 열성이었다.

그러나 1970년에 스승인 웨슬리 스위프트가 57세의 나이로 죽으면서, 윌리엄 포터 게일은 조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그에 따라 그는 독자 노선을 걷게 되고, 마침내 1970년대에 포세코미타투스(Posse Comitatus), 즉 군민회(the power of the county)를 창설하는 데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군민회 운동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진 정부에 대한 반대하고 그것을 작은 지방 정부로 해체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운동이었다.

미국에서 정부의 규모와 권한이 커지게 된 것은 1930년대 빈민을 돕기 위한 뉴딜 정책의 시행 때문이었다. 민주당의 복지국가 건설은 막대한 정부 지출을 필요로 하였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가 늘고 정부적자가 늘어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포세코미타투스’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볼 때, 민주당 행정부의 복지국가 건설은 게으른 빈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근면한 근로자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도덕한 행위였다. 동시에 그것은 1789년의 원래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불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정당성을 가진 정부는 주민과 가까이 있는 작은 정부, 즉 군 정부(county or parish government)였다. 그에 따라 ‘기독교 정체’ 신학은 극단적인 지방자치주의(radical localism)와 손을 잡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러한 이상적인 작은 정부가 건국초기에 실제로 있었다고 믿었다. “건국 초기에는 군(또는 교구) 정부가 우리 공화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정부”였다. 따라서 “헌법상의 최고 권한은 군 보안관(county sheriff)에게 있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러한 생각은 연방정부의 세금 징수에 대한 반발로 이끌었고, 그 결과로 국세청(IRS)과 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윌리엄 포터 게일 자신도 1987년에 세금 문제로 기소되어 투옥을 당하게 되었다. 그는 재판 도중에 병을 얻어 1988년에 71세로 죽었다.

웨슬리 스유프트의 또 다른 제자는 로키드 항공사의 기술자로서 기독교방위연맹의 제2대 회장이었던 리차드 건트 버틀러(Richard Girnt Butler)였다. 버틀러는 1973년에 산간지대인 아이다호의 코르달린으로 옮겨가 ‘기독교 정체’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의 정치 조직으로서 유명한 아리안국민(Aryan Nations)을 조직하였다. 두 단체는 모두 엄중히 경비된 단지 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 단지

안에서 버틀러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인종주의자들을 위한 통합 모임으로서 매년 아리안국민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리처드 건트 버틀러가 나이가 들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웨슬리 스윙프트 인맥을 이을 후계자가 끊어지게 되었다.

3. 1970년대 이후의 과격화

포세코미타투스과 지방국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 정체’는 연방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봉자들은 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 메츠거(Tom Metzger)와 데이비드 듀크 같이 정치적 진출을 시도한 신봉자들도 약간 있었다. 톰 메츠거는 1974년에 제임스 와너의 ‘기독교 정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1975년에는 데이비드 듀크가 이끄는 쿠클릭스클랜 기사단(Knights of KKK)에 가담함으로써 ‘기독교 정체’ 운동과 클랜 운동을 병행하였다. 오히려 그는 쿠클릭스클랜 운동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톰 메츠거는 캘리포니아에서 1980년과 1982년에 각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선거 과정에서 그는 그의 말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다. 즉, 그는 정당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 세력과 이념이 비슷한 우파적 정당인 공화당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좌파적 정당인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다(Barkun 210).

메츠거에 비해 데이비드 듀크(David Duke)의 정치적 도전은 좀 더 성공적이었다. 데이비드 듀크도 메츠거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공천이 아닌 민주당 공천으로 루이지애나 주 상원 의원에 몇 차례 출마하였다. 가장 성적이 좋았던 경우는 1979년에는 4명의 후보가

운데 2등을 차지한 것이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민주당(People's Party)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일반선거에서 4만7천표를 얻었는데, 이 당은 4년 전에 '기독교 정체' 세력을 비롯한 모든 우파 세력을 포용한다는 목표로 창당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89년에 갑자기 데이비드 듀크는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꾸어 루이지나의 빈민가 선거구에서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데이비드 듀크가 '기독교 정체'와 공식적으로 연결된 적은 없었다. 그래서 그가 그 종교의 신도라는 증거도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임스 와너를 비롯한 '기독교 정체'의 주요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그들과 같은 노선에서 활동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쿠클럭스클랜 기사단의 목사직이 비자, 듀크는 그 자리에 '기독교 정체'의 목사인 썸 로브(Thom Robb)을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부 신도들의 정치 참여는 '기독교 정체'가 내세워 오던 천년왕국설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세계가 역사의 최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일상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체' 신도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작은 국가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완전한 지방자치, 또는 지방주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형성된 것이 1982년에 채택된 느헤미야 마을 헌장(the Nehemiah Township Charter)과 보통법 계약(Common Law Contract)이었다.

그것은 59명이 아이다호 북부에 모여 서명한 문서인 데, 서명자 가운데는 리차드 건트 버틀러, 썸 룩, 로버트 마일즈 같은 잘 알려진 인물이 있었다. 그것은 13개의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영국에 대항해 독립을 선포여 13개의 국가가 된 다음, 느슨한 국가 연합(Confederation)을 형성했을 때 나타났던 지방분권주의의 이상을 부활시키려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13개의 국가들이 1789년에 연방국가를 수립하기 이전인 1780년대에 존속했던 국가 연합 헌장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느헤미아 마을’ 현장은 고대 원시 앵글로색슨 족의 법을 부활시켜 “아리안 자유민”으로 이루어질 지방 공동체의 법적 체도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기독교 정체’ 신학의 정치적 근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법적 근본주의를 내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목표는 그들의 신앙에 맞는 ‘작은 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러한 ‘작은 국가’의 실현 수단이 군민회였다. 군민회는 원래 농촌 지역에서 범법자를 처리하기 위해 법 집행 관리가 소집하던 주민회의였다. ‘기독교 정체’ 신도들은 바로 그 관행을 되살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군(county)의 성년 남성들로 군민회를 구성하고, 그들의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Barkun 220). 군민회는 마을에서 ‘신의 법’을 집행하게 되는 데, 그 과정을 지방 보안관(sheriff)이 관리하도록 한 것이었다. 보안관의 활동 영역은 현장에서 규정된 작은 마을(shire)로 한정되었다. 보안관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군민회는 다시 보안관을 뽑아야 했다.

마을에서는 군민회만이 정당한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정부의 권위도 부정되었다. 그러므로 그 현장이 미치는 마을 안에서는 마을의 법을 어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관리도 마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 비슷한 ‘작은 국가’ 공동체들은 이미 1969년부터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는 오리건의 포틀랜드에서 헨리 “마이크” 비취가 시작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윌리엄 포터 게일이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순수한 ‘기독교 정체’ 운동 조직은 아니었지만, ‘기독교 정체’ 인사들이 압도적인 다수로 참여하고 있었다(Aho 45-46). 그것은 부패하고 좌경된 공직자들에 대해 참된 법을 구현하는 자경단(vigilante)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윌리엄 포터 게일의 말을 빌리면, 통치기구이기는 하지만 정부라기보다는 혁명적인 세포조직(cell)이었다.

이러한 조직의 출현은 연방정부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였는데, 그

러한 혁명적인 의도가 잘 나타난 것이 “잔존 세력의 결의안”(the Remnant Resolves)이었다. 그것은 콜로라도 라포트 교회의 피트 피터스(Pete Peters)가 만든 것으로, “잠자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병사로서 일깨우고 자극하려는 데서 만들어졌다. 기독교인들이 “잠자고 있다”는 말은 연방 정부가 부패하고 사악한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잔존 세력의 결의안”은 38개의 독립된 결의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밑에 흐르는 기본 사상은 지금의 미국 정부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기독교 정체’의 정부관이었다. 동시에 막연하고 신비로운 앵글로색슨적 원시생활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하는 희망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미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가정 파괴와 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여성 해방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사회를 타락시키는 세속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거부하기 위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국가관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직한 근로자인 소시민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폐지하고, 이른바 “영적” 과세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낙태, 동성애, 인종간 혼인을 반대하고 백인 중산계급의 기독교적 도덕주의를 강조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유대인의 공직 취임을 반대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법이 ‘전정한 미국’(real America)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선 널리 알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잔존세력의 결의안”과 그것을 쉽게 설명한 책자를 3049개에 이르는 전국의 군법원에 보냈다.

생존주의와 영토분리주의

이들과는 약간 방향을 달리 해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도 있었다. ‘기독교 정체’ 신학의 천

년왕국설과 ‘아마게돈 전쟁’의 개념에 충실하다 보면, 세상의 멸망이 임박했고 또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므로 적들이 패배하여 평화가 올 때까지 피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이와 같은 생존주의(survivalism)의 주장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76년이었다. “만일 여러 분이 지금 통과 탄약을 얻어 전쟁 준비를 한다면,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로 윌리엄 파울러는 전쟁 대비와 은둔 생활을 권고하였다(213).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정체’ 신학의 신봉자들은 미국 안에서 피난처가 될 땅을 확보해야 했다. 그것은 영토분리주의를 의미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연방헌법의 헌법수정조항 제1조가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피난처의 첫 번째 유형은 외딴 곳에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서, 덴 게이멘의 이스라엘 교회(Church of Israel)가 그러한 경우였다.

두번째 유형은 앞으로 나타날 긴급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젊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존 해럴의 기독교애국자 방위연맹(Christian-Patriots Defense League)과 같은 군사적 성격을 띤 공동체였다.

세 번째 유형은 중간 규모의 크기로 온건한 것으로서, 제임스 엘리슨의 성약-칼-주의팔(Covenant, Sword and Arm of the Lord)과 같은 정치적 성격을 띤 공동체였다.

네 번째 유형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아리안 국가”(the Aryan State)를 건설하려는 세력이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연방정부의 권위에 대항하여 민중의 저항이나 게릴라식 반란을 옹호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것들은 사실상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 단체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였고, 그 때문에 윌리엄 퍼스가 1978년에 출간한 지하 소설 『터너 일기장 *The Turner Diaries*』을 읽었다. 윌리엄 퍼스는 ‘기독교 정체’의 신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시한 폭력 사

용의 방법들은 이들 영토적 분리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보다 더 강한 조직들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1983년에 아이다호에서 로버트 매튜즈(Robert Matthews)에 의해 조직된 종단(the Order)이었다. 그것은 수도원과 같이 조직되었다는 의미에서 종단으로 불렸지만, 자기들 끼리는 보통 ‘슈바이젠 형제들’ 또는 ‘조용한 형제애’로 불렸다. 로버트 매튜즈의 의도는 기존의 연방 정부, 즉 ‘시온주의자들(유대인들)이 점령한 정부’(ZOG)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었다. 조직원의 상당수는 “아리안 국민들”과도 연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4년에 창설자인 로버트 매튜즈는 덴버의 유대인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살해 사건과 관련되어 연방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 이후로 조직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다.

영토분리주의자들 가운데는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권리를 확보할 독립 국가, 즉 ‘자유 국가(Free State)’, 또는 ‘자유국가 공화국(Free State Republics)’을 외딴 곳에 세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 정체’ 지도자들 가운데는 직접 태평양연안의 북서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리처드 건트 버틀러였다. 그러한 ‘자유 국가’가 세워질 곳은 유대인이나 흑인이 별로 없는 서북부의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몬태나, 와이오밍이었다. 그리고 그 곳은 핵전쟁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도 생각되었다. 그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미국 영토를 인종적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1986년에 톰 메츠거가 이끄는 백인아리안저항(White Aryan Resistance, WAR)은 미국 영토를 3등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서부 지역은 “백인 미국인 요새”(White American Bastion)로 백인들에게 떼어 주고, 기존의 연방국가, 즉 ‘시온주의자들이 점령한 정부’는 동북부 지역에 한정시키고, 두 지역의 중간 지역은 “이슬람 국민”, 즉 흑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이처럼 백인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미국 영토의 일부를 유대인들과 흑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주장한 것은 아리안의 정신이 비(非)아리안 족들에 의해 완전히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책이었

다. ‘기독교 정체’ 신학의 신봉자들은 것처럼 인종적 순수성을 중요시하는 인종주의자들이었던 것이다.

‘신의 법’과 자유방임주의

그러나 ‘기독교 정체’ 신학이 현재의 미국 사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영토분리주의의 주장이 아니라, 그것이 정부개입과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와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장은 그 근거를 성서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미국법의 성서화(Biblicizing American Law)”, 즉 미국의 실정법을 성서에 따라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그것은 성서가 실정법의 궁극적인 원천이므로, 언젠가는 인간이 만든 법 대신에 보다 더 높은 신이 만들어 준법이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피트 피터스가 “존존체력의 결의안“선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이야 말로 ”위대한 법 제정자“(the Great Lawgiver)였다. 따라서 신의 법은 ”정치적 주장이나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바로 신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신의 법(divine law)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정체” 신도들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민법(civil law)을 신의 기준에 합치시키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기독교 정체’ 신도들은 연방정부의 세속적 권위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성이 항상 있었다.

“신의 입법”은 구약성서의 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신이 앵글로-색슨-켈트 족에게 특별히 내려 준 것이었다. 그 법은 현실적으로 자유방임주의의 원리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서 증명된 것은 대공황과 뉴딜 정책이 있었던 1930년대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 사회가 신의 법인 자유방임주의와 개인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정부개입주의와 계획경제를 받아 들인 데 대한 신의 징벌이었다.

따라서 대공황의 경제적 곤경은 결국 신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신의 왕국 백성’의 책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워드 랜드는 설명하였다(Barkun 202). 그러므로 미국이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법의 근원인 성서에 따라 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뿐이었다. 하워드 랜드의 말에 따르면, 신의 법에 따른 법의 제정이야말로 “궁극적인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망각을 예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었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사회주의적인 통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한 경고였다. 1930년대에 하워드 랜드는 뉴딜 정책의 계획경제, 그리고 유대인의 관직 등용, 그리고 유대인을 정상적인 시민으로 인정하는 인종 통합 정책이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대공황기에 윌리엄 카메론도 “신의 경제학”이란 연설에서 “성서적 경제학”은 개인주의 철학을 내세우고, 그것이 사회 정의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성서적 경제 체제(a Biblical economic system)’는 신이 준 과세와 대출의 원칙들을 지킬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바빌론적 체제”를 대신할 “이스라엘적 과세 제도”와 “이스라엘적 표준”이었다.

‘성서적 경제 체제’는 토지와 그것의 소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넘는 잉여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체’ 신학자의 이러한 주장들이 1930년대에 대공황으로 곤경에 빠진 파산자들에게 귀가 번쩍 뜨일 정도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30년대에 기존의 사악한 “바빌론적 체제”를 상징하는 것은 금 본위제를 지키기 위해 은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금융업자들이었다. 즉,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부채와 통화량 부족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의로운 체제란 기존의 금본위제에 덧붙여 은본위제를 병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체성” 신학은 성서를 ‘은본위제’(soft money) 정책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 농민들에게 썩

돈을 대출하라고 주장한 19세기 농민들의 경제적 급진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데이비드 데이비드슨은 “금권 세력”(the Money Power)이 미국의 제도들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말은 19세기 급진적인 농민들인 민중주의자들(Populists)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Hofstadter 249&204).

그러한 시각은 연방준비제도(FRB system)에 대한 공격으로도 나타났다. 쉘든 에프리는 『은행가들을 위한 때 돈』(*Billions for the Bankers*)이라는 책에서, 미국은 은행가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고, 정치, 종교, 교육, 오락, 언론의 분야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실상의 숨은’ 음모자들이 있다고 비난하였다(Barkun 205).

연방정부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항하는 또 다른 방법은 조세 저항이었다. 윌리엄 카메론의 “신의 과세 제도”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개인 재산을 빼앗는 것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었다. 또한 그는 물품이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세의 폐지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부가세는 누군가가 남의 세금을 대신해서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에 카메론과 랜드는 기존 과세 정책에 대해 행동으로 직접 저항하지는 않았다.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바빌론적 체제”를 목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기독교 정체’ 신봉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조세 저항의 한 경우가 1983년에 일어난 고든 칼(Gordon Kahl) 사건이었다. 고든 칼은 노스다코타의 “기독교 정체” 신도로서 2명의 연방 보안관을 살해하고 도주하였다가, 연방수사국에 의해 아칸소에서 살해당하였다. 그는 ‘기독교 정체’ 신학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16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는 국세청에 대해 “더 이상 악마의 교회당에 십일조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써서 보냈다. 그는 ‘기독교 정체’ 신학의 납세 저항 이론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Corcoran 51-52).

1.1.1.1.1.1. 윌리엄 포터 게일도 국세청(IRS) 관련법 전체를 거부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국세청은 “시민이 신으로부터 받은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비헌법적인 권력남용의 올라미”로 보였기 때문이

었다.

1.1.1.1.1.2. 그에 따르면, '성서의 법'에 따른 정부는 건국 초기를 전후해 있었던 국가연합(Confederation of States)과 같은 느슨한 정부였다. 그 이후에 헌법 수정을 통해 의회가 소득세와 같은 새로운 세금을 시민에게 부과했는데, 그러한 행위는 원래의 정부가 가졌던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특히 누진세와 같은 것은 미국의 국민정신에 어긋나는 공산주의적인 것이었다. "주권적인 시민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적인 누진 소득세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시민을 끌고 오는 것은 어떤 권위에 근거하고 있는가"하고 윌리엄 포터 게일은 연방 정부에 항의하였던 것이다.

4. 맺음말

오늘날 미국 극우파의 이념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 정체' 신학의 내용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종교적 우파로서 흔히 신우파로 불리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Religious Fundamentalists)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

실제로 두 세력은 개신교도(Protestant)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세력은 성서의 모든 내용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신의 말씀으로 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세력은 차가운 교리 보다 뜨거운 신앙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두 세력은, 교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이 종말에 이르렀다거나 또는 새로운 세상이 임박했다고 믿는 종말론이나 천년왕국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두 세력은 미국이 좌파와 세속주의자들에 의해 타락하고 몰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로서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세력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유대인 문제, 또는 시온주의 문제이다. 근본주의자 개신교도들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강하지 않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 정체' 신학의 신도들은 유대인을 악마로 볼 정도로 증오하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적대적이다.

이와 같은 반유대주의 문제 때문에, 두 세력은 온건파와 과격파, 바꾸어 말해 신우파(the New Right)와 극우파(the Far Right, the Radical Right)로 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지 부시가 이끄는 공화당도 신우파에게만 지지의 손을 벌리게 되는 것이다. 선거와 언론이 존재하는 한, 미국에서 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지지할 정치가는 나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기독교 정체, 극우파, 민병대, 브리티시-이스라엘리즘, 반유대주의,

인 용 문 헌

- 이주영, 『미국의 좌파와 우파』 (살림출판사, 2003).
- 이주영, “미국 극우파의 성격(1980-1995)”, 『미국사연구』 제11집(한국미국사학회, 2000. 5).
- 이주영, “미국 신우파의 역사적 위치,” 『북미연구』 제5집(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북미연구소, 2000).
- 김연진, “1970년대 미국의 신우파:형성과 그 성격” 『상평사학』 제3집 (상명여자대학교, 1995).
- 안윤모, 「1920년대 쿠클럭스클랜과 도덕 개혁」, 『미국사연구』 제11집(한국미국사학회, 2000).
- 안윤모, 「1960년대 쿠클럭스클랜과 민권 운동」, 『인문논총』 제11집(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03).
- 이봉희, 『보수주의:미국의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민음사, 1996).
- 권용립, 『미국적 보수주의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Aho, James A. *The Politics of Righteousness: Idaho Christian Patriotism* (Seattle: U of Washington P, 1990).
- Barkun, Michael. *Religion and the Racist Right: The Origins of the Christian Identity Movement* (Chapel Hill, N.C.: U of North Carolina P, 1997).
- Bennett, David H. *The Party of Fear: From Nativist Movements to the Ne Right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Vintage Books, 1996).
- Cohn, Norman. *Warrant for Genocide: The Myth of the Jewish World-Conspiracy and the “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 (Chico, Calif.: Scholars Press, 1981).
- Coppola, Vincent. *Dragons of God: A Journey Through Far-Right America* (Atlanta ; Longstreet Press, 1996).
- Corcoran, James. *Bitter Harvest: Gordon Kahl and the Posse Comitatus--Murder in the Heartland* (New York: Viking, 1990).
- Garrett, Clarke. *Respectable Folly: Millenarians and the Frech Revolution in France and England*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5).

- Gayman, Dan. *Articles of Faith and Doctrine for the Churches of Israel, Diocese of Manasseh, United States of America* (Schell City, Mo.: Church of Israel, 1982).
- Gerber, David A, ed., *Anti-Semitism in American History* (Urbana: U of Illinois P, 1986).
- Gibson, James William. *Warrior Dreams: Paramilitary Culture in Post-Vietnam America* (New York: Hill and Wang, 1994).
- Heale, M. J. *American Anticommunism: Combating the Enemy Within, 1830-1970* (Baltimore, Md.: Johns Hopkins UP, 1990).
- Hoffert, Robert W. *A Politics of Tension: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American Political Ideas* (Niwot: UP of Colorado, 1992).
- Hofstadter, Richard. *The Paranoid Style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Knopf, 1965).
- Horsman, Reginald. *Race and Manifest Destiny: The Origins of American Racial Anglo-Saxonism* (Cambridge: Harvard UP, 1981).
- Howard Bushart et al. *Soldiers of God: White Supremacists and Their Holy War For America* (New York: Kensington Publishing, 1998).
- Kaffrey, Kaplan. *Radical Religion in America: Millenarian Movements from the Far Right to the Children of Noah* (Syracuse, N.Y. : Syracuse UP, 1997).
- Roy, Ralph Lord. *Apostles of Discord: A Study of Organized Bigotry and Disruption on the Fringes of Protestantism* (Boston: Beacon, 1953).
- Sapp, Alan D. *Ideological Justification for Right Wing Extremism: An Analysis of the Nehemiah Township Charter Document* (Warrensburg: Center for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ral Missouri State University, 1986).
- Tuveson, Ernest. *Redeemer Nation: The Idea of America's Millennial Role* (Chicago: U of Chicago P, 1968).

Abstract

The "Christian Identity" Movement as an American Radical Right, 1945–1990

Joo-Young Lee

This article attempted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the American Far Right or Radical Right was related to the "Christian Identity" Movement, a marginal religious movement originated in the "British-Israelism" of the Great Britain. In revealing their relationships, the author tried to trace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lineage of millennialism, Anglo-Saxon Israelism, white racism, anti-Semitism, anti-communism, Ku Klux Klan ideas, and survivalism.

The "Christian Identity" theology has been built around the following three key beliefs. First, it believes that the Anglo-Saxons, the white Aryans, are descendants of the Biblical tribes of ancient Israel and thus are destined to do God's work on earth. Second, it believes that the Jews not only have no connection with ancient Israelites, but they are also the very children of the Devil. Third, it believes that the world is on the verge of the final, apocalyptic war of Armageddon between Aryans and Jews.

Such a demonization of Jews has led to the concept of the "Jewish conspiracy" maneuvering both to overthrow the U.S. government and to build a left-leaning One World Government such as the United Nations. And such a concept has led to the formation of anti-Semitic, anti-Multicultural, anti-Leftist, anti-Feminist radical organizations like the Aryan

Nations, the Order, the Christian- Patriots Defense League,
the Covenant-Sword-and-Arm of the Lord.

key words : Christian Identity, Radical Right, militia,
British-Israelism, anti-Semitism,